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유 성 경 이 동 혁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성별에 따라, 연령집단에 따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상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해 198명의 일반성인, 150명의 대학생, 193명의 중, 고등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는 Fisher와 Turner(1975)의 상담태도에 관한 질문지로 측정되었고,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은 Singelis와 Triandis(1995)가 개발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로 측정되었다. 연구결과 여자가 남자들에 비해, 그리고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상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수직적 개인주의와 오점수용 정도는 역상관관을 보였으며, 집단주의와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상담분야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로 20세기에 들어와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학문, 실천 분야이다. 그런데, 상담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많은 경험 연구들(Wampold, 2000)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상담을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담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상담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도 적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조차도 상담 분야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Hennesy, Hennesy와 Yares(1999)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아동, 청소년들 가운데 심리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84%에서 63%에 이른다. 또한 Kuhl, Jarkon-Horlick와 Morrissey(1997)의 연구에서도 1990년대 초반의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청소년들 가운데 정서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적절한 치

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상담학회에서는 상담이 대중적으로 올바르게 이해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강력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담자들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인간이 정서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 오점 찍는 것을 방지하는 캠페인(anti-stigma)을 벌이고, 정책관련자들과의 체계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상담의 대중화를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다(Foxhall, 2000).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상담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 방법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면, 이러한 도움이 보다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문이 지니는 중요한 도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문제 제기가 상담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미국 사회의 이야기라고 하면, 과연 우리 한국 사회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만큼의 심리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이들 가운데 상담 및 심리치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여 상담 이용률이 얼마나 저조한가에 관한 기초 조사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아시아 문화적인 특성과 상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미국의 경우보다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 후기 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증후들로 인해 인간 내면적 문제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으로서 상담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요구가 급증하

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상담이 인간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사람들이 상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이 상담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된 요인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상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성별, 연령별,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이 한국인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될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성과 남성간에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들의 연령집단간(일반성인, 대학생, 청소년)에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인의 집단주의-개인주의 경향성이 상담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개관

1. 상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 개인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변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상

상담을 이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들로는 상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야하며 (availability), 상담 시설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accessibility), 또한 상담을 받는데 필요한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affordability). 상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변인들로는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와 같은 인구학적인 변인과 더불어 사적인 문제에 대한 개방성, 감정 표현력, 심리적 불편감 등의 심리적인 변인 등을 들 수 있다(Cepeda-Benito & Short, 1998).

Komiya, Good, 그리고 Sherrod(2000)는 상담 태도와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개관하고 있다. 먼저 상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개인 심리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감추고 싶어하는 경향 (self-concealment)이 높을수록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반대로 정서적인 불편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느낄수록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정보에 대해 노출하는 것을 불편해 할수록, 심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 낙인찍는 경향이 강할수록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집단에 있어서 상담 이용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방대하게 검토한 Schoner-Reichl 와 Muller(1996)에 의하면 자아가치감,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일수록,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를 적게 받는 집단일수록 상담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내담자들의 인구학적인 특성으로는 개인의 성별, 인종, 연령 등이 있다. 먼저 성별에 따라 상담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에 관한 기존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상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보고되고 있다(Fisher & Turner, 1970; Brinson & Kottler, 1995).

또한 연령에 따라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경우 발달적인 특성으로 인해 성인들보다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 심리적인 격동을 경험하게 되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 특별히 외현적 행동상의 문제로 인해 상담 받는 것을 꺼린다. 반면, 이들의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의 행동상의 문제들로 인해 상담 받기를 원한다(Sorian, Emerson, Weber-Shifrin, & Donenberg, 1999). 청소년 집단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전문 상담자 보다는 또래 친구들에게 의논하거나 부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그리고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ner-Reichl & Muller, 1996).

상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화적 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내의 소수 민족인 동양계 미국인들(Asian Americans)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초기의 연구들은 동양인들이 실제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help-seeking behaviors)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미국문화권 내에서는 동양인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들이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이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Bogart, 1998; Leong, 1986; Sue & Sue, 1972; Ying & Miller, 1992; Zhang, Snowden & Sue, 1998)는 것이다. 미국으로 이민한 동양인들의 경우, 적응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거나,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Akutsu, Snowden, & Organista, 1996; Narikiyo & Kameoka, 1992), 혹은 이웃의 어른이나 종교적 지도자, 학생모임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lberg, Choi, Ritsma, & Jolly, 1994).

동양인들이 상담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동양인들의 문화적 가치와 상담 및 심리치료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간의 근본적인 차이(culturally-based psychological barriers)가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으로 이주한 동양인들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한결같이 내담자들이 서구문화를 내면화한 정도(acculturation level)가 높을수록 상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결과적으로 상담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Atkinson, Wampold, Lowe & Ahn, 1998; Solberg, Choi, Ritsma, & Jolly, 1994; Ying & Miller, 1992; Zhang & Dixon, 1999). 이는 내담자에게 내면화된 문화적인 가치가 상담에 대한 태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집단주의/개인주의와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상담 및 심리치료가 전제하는 서구적 문화 가치와 동양적 문화 가치가 상충하여 동양인 내담자가 서구적 상담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동양적 문화 특성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Yoo(1997)는

동양 문화의 집단주의적 성향(collectivism), 정신 병리를 갖는 것에 대해 오점찍기(stigmatization), 심신 일원론이 상담과 관련된 주된 동양 문화적 특성임을 밝히고 있다. 이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동양 문화권의 집단주의적 경향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 보다는 집단 구성원들간의 조화를 중시하고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평화를 위해 개인의 절제된 행동을 강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적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노출하는 것은 개인적인 유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사회적인 관계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무례한 행동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양 문화권에서 감정표현에 대한 절제현상은 감정 용어에 대한 문화적 연구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중국어, 일본어에는 영어의 'Depression'에 해당하는 정확한 대칭어가 없다고 한다(Beeman, 1985; Tanaka-Matsumi & Marsella, 1976).

동양의 문화적 변인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경험주의적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드물게 진행되었다. 미국인들과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Tata와 Leong의 연구(1994)에 의하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Yoo(1997)의 연구 결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 준다. Yoo(1997)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및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로 나누어 이들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화적 변인은 개인주의-집단주의 경향성 보다는 수직적-수평적 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문화에서는 관계에 있어서 평등이 중요시되는 수평주의가,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상의 권위와 지위가 중요시되는 수직주의가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가 상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내의 일반성인 집단과 대학생들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유성경과 유정이(2000)의 연구에서도 개인주의 가운데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해 주었다.

연구방법

1. 표 집

본 연구의 표집은 일반성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중, 고등학생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인 집단은 회사원, 주부, 그리고 교사들로부터 모두 195명을 표집하였고, 대학생 집단은 서울소재 2개 대학교에서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모두 153명을 표집하였다. 그리고 중, 고등학생 집단은 서울소재 4개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모두 193명을 표집하였다. <표

1>에 제시된 표집 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40.7%와 59.3%이었다.

2. 검사 실시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검사지,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 상담에 대한 태도 질문지를 한번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학생 집단과 중,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나 교사가 연구의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수업 중에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일반인의 경우 회사원들은 회사 내에서 개별적으로 검사에 응하였으며, 주부의 경우는 회사 내에 진행된 주부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사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3. 검사 도구

1)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은 Singelis와 Triandis등(1995)이 개발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The Scal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를 사용하였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는 유성경이 번안한 것(Yoo, 1997)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표 1. 표집의 성별 분포 ()안의 숫자는 %

	일반성인	대학생	중고등학생	전체
남 자	75(38.1)	47(31.5)	97(50.3)	220(40.7)
여 자	122(61.9)	102(68.5)	96(49.7)	320(59.3)
전 체	198(100)	150(100)	193(100)	541(100)

HI),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VI),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VC),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HC)의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HI)란 각 개인의 자율적인 자아가 중요하고, 모든 개인은 다소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개인주의의 관점이다. 반면,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란 개인의 자율적인 자아를 우선하되, 개인들 각각이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되어 개인간의 불평등이 있음을 예상하고, 개인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의 관점을 일컫는다.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보고, 그룹 속의 개개인은 각각 서로 다르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집단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람들간의 불평등이 인정되며 때로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삶의 주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란 개인을 그룹의 일부로 보되, 모든 개인은 평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는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9점 리커트 척도로서, 4개의 하위척도 VI, VC, HI, HC 은 각 8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며 각 하위척도는 8점에서 72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갖게 된다. 본 질문지의 신뢰도는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HI .67, VI .74, HC .74, VC .68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신뢰도(>.60)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ingelis와 Triandis, et al, 1995). 본 연구는 문화권이 다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질문지가 한국문화권에서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표 2.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의 Chronbach α

	Chronbach α			
	전체	일반	대학생	중고등학생
VI	.69	.67	.76	.67
HI	.76	.77	.77	.78
VC	.64	.55	.67	.68
HC	.65	.58	.68	.70
전체	.78	.73	.77	.81

검사도구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 산출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검사도구의 신뢰도가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보다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별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수직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 척도는 .60 이하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2)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에 대한 태도는 Fisher와 Turner(1970)가 개발한 상담에 대한 태도 질문지(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Scale)로 측정하였다. 본 질문지는 총 29개의 문항과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 상담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는 욕구(Need) 하위척도, 둘째, 정신병리에 대한 오점수용 정도를 의미하는 오점수용(Stigma) 하위척도, 셋째,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개방정도를 의미하는 개방성(Openness) 하위척도, 넷째,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이나 전문가에 대한 신뢰감을 의미하는 신뢰감(Confidence) 하위척도이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1부터 4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문항 수는 욕구 척도가 8개 문항, 오점수용 척도는 5개

표 3. 상담에 대한 태도 질문지의 Chronbach α

	Cronbach α			
	전체	일반	대학생	중고등학생
욕구	.03	-.14	.31	-.11
오점수용	.74	.71	.83	.68
개방성	.18	.03	.40	.10
신뢰감	.62	.52	.69	.52
전체	.66	.55	.81	.43

문항, 개방성 척도는 7개 문항, 신뢰감 척도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유성경(1997)이 번역한 것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를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신뢰도는 욕구척도가 .67, 오점수용척도가 .70, 개방성척도가 .62, 신뢰감척도가 .74로 보고되어 비교적 신뢰로운 질문지로 평가되고 있다(Fisher와 Turner, 1970).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권이 다른 한국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한국 문화권에서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본 질문지는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나 하위척도별로 보았을 때는 욕구척도와 개방성 척도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척도를 제외하고 오점수용척도와 신뢰감 척도만을 활용하여 한국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

첫째,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있어서

세 연령집단(일반성인 집단, 대학생 집단 그리고 중, 고등학생 집단)간에 그리고 성별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에 대한 태도점수의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3 X 2 (3 연령집단, 남/녀 집단)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성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그리고 청소년 집단간에 상담에 대한 태도 가운데 신뢰감, 오점수용 정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감 점수와 오점수용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3 X 2 (3 연령집단, 남/녀 집단)다원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개인주의-집단주의 경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의 4개 하위변인 (HI, HC, VI, VC)의 점수와 상담에 대한 태도 질문지의 2개 하위척도(오점수용, 신뢰성)점수와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이의 의의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성별, 연령집단 간 차이

한국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가 성별에 따라 그리고 연령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상담에 대한 태도 질문지의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집단 간 그리고 성별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ANOVA)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담태도 총점에 대한 연령집단간 그리고 남녀집단간의 이원 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 독립변인 연령집단과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표 4. 상담에 대한 태도총점에 있어서 연령집단간, 성별간 차이

상담에 대한 태도점수	일반성인			대학생			중고등학생			F [*] (df=2, 503)
	남 (73)	여 (114)	전체 (187)	남 (47)	여 (98)	전체 (145)	남 (90)	여 (87)	전체 (177)	
M	76.66	79.70	78.51	73.43	77.65	76.29	73.60	75.44	74.50	10.73***
SD	6.12	7.33	7.02	6.78	11.00	10.01	6.27	6.13	6.25	

주) F*값은 연령집단의 주효과를 보여주는 수치임.

() 안의 숫자는 해당 사례수임.

*** p < .001

나, 두 독립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태도 총점에 대한 세 연령집단의 남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그리고 연령집단간 변량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세 연령집단간에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성인 집단이 상담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청소년 집단이 상담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성별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1, 503)=18.62, p<.001).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연령 집단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상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상담에 대한 태도 질문지의 두 가지 하위척도(오점수용, 전문가에 대한 신뢰감)에 있어서 연령집단간, 남녀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하위척도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3 X 2 다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변량 분석결과에 의하면 두 독립변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독

립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간 상담태도에 대한 두 하위척도 점수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에 의한 F 값은 F(4, 1028)=8.44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통계치이다.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다변량분석 결과가 나왔으므로 두 종속변인인 오점수용 하위척도와 전문가 신뢰감 하위척도 점수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상담에 대한 태도점수에 있어서 세 연령집단간의 유의있는 차이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감 척도에서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세 연령집단간에 전문가를 신뢰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정신병리에 대한 오점을 수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전문가를 신뢰하는 정도를 세 연령집단간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일반 성인집단이 전문가 집단을 가장 신뢰하였으며 반면 청소년 집단은 전문가 집단을 가장 낮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태도 두 하위척도 점수에 있어서 남녀 집단간의 주효과를 검증한 다변량 분석 결과 F 값은 F(4, 1030)=8.55로서 의의도 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오점수용 하위척도와 전문가 신뢰성 하위척도에 대한 일

표 5. 오점수용, 신뢰감 척도에 있어서 연령집단간, 성별간의 차이

상담태도 하위척도	일반성인			대학생			중고등학생			F*(2, 516)
	남 (74)	여 (118)	전체 (192)	남 (47)	여 (100)	전체 (147)	남 (91)	여 (92)	전체 (183)	
오점수용										
M	2.91	2.88	2.89	2.83	2.95	2.91	2.78	2.87	2.82	.69
SD	.59	.66	.63	.68	.72	.71	.54	.66	.60	
신뢰감										
M	2.59	2.75	2.69	2.39	2.53	2.49	2.44	2.45	2.44	17.05***
SD	.43	.35	.39	.41	.46	.45	.44	.38	.41	

주) F* 값은 연령집단의 주효과를 보여주는 수치임.

***p<.001

원변량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오점수용에 있어서는 남녀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문가 신뢰성 점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세 연령집단의 남녀집단간 각 하위척도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세 집단 모두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전문가들을 보다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주의-집단주의 경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개인주의-집단주의 경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점수용척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15, p<.01$).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 성향 중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정신적인 병리가 있다는 사실로 생길지도 모르는 오점을 수용하기 어려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직적 집단주의($r=.18, p<.01$)와 수평적 집단주의($r=.09, p<.05$)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뢰감 척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에 신뢰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개인주의-집단주의 경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오점수용	-.15**	.06	-.08	.03
신뢰감	.01	-.07	.18**	.09*

* p < .05 ** p < .01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가 연령집단별로, 남녀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성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92명의 일반 성인집단, 183명의 대학생 집단, 그리고 183명의 중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령이 높은 집단일 수록 상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중고등학생 집단은 상담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이 상담에 대해 비자발적이며 전문적인 도움을 꺼린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상담에 대한 태도를 정신병리에 대한 오점 수용점수와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의 점수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오점 수용정도에 있어서는 세 연령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문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성을 갖는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 성인집단일수록 전문가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청소년집단은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리라는 신뢰를 가장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연령고저를 막론하고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병리에 대한 오점 수용정도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 점수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전문가의 도움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여자들이 상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결과는 서구 문화권에서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집단주의-개인주의 경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우선 수직적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정신병리에 대한 오점수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직적 개인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이 경쟁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지위에 따른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때, 관계 지향적이고 경쟁이나 지위에 따른 불평등보다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중요시하는 상담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별히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로 인해 오점이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경쟁적이며 성취 지향적이며, 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에게는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집단주의/개인주의와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결과는 수직적/수평적 집단주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 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기존 문헌들의 제언과는 상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상치된 결과는 상담에 대한 태도를 어떠한 차원에서 측정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주의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 상담에 대한 태도 측면은 전문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뢰감 척도 뿐 이었다. 반면 기존 연구들에서 집단주의와 역상관의 관계를 가지는 상담에 대한 태도 차원은 주로 오점수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문화권에서 상담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척도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분석, 그리고 이러한 하위척도와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특성이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매우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로 밝혀진 상담태도에 대한 질문지가 본 연구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내적 타당도 분석을 하였을 때, 하위척도의 내적 타당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상담태도는 미국인들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므로 한국 문화권에서 상담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요인구조를 갖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 개발이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가 상담 실제에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상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청소년 집단이 일반 성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상담 전문가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를 별로 갖지 않는다는 결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통적인 면접 상담 이외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청소년들이 상담에 대해 가지는 비자발성으로 인해 이제까지도 청소년 상담은 상담자에게 매우 어려운 영역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담과 상담자에 대해 청소년들이 가지는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다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논의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직적 개인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상담 받음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치명적인 오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많음으로 상담 그리고 정신병리에 대한

올바른 계몽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최근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대중 매체와 캠페인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인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다(Foxhall, 2000).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을 비교하였던 Yoo(1997)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문화는 수직주의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것이 한국인들의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에게 정신병리를 갖는 것 그리고 상담을 받음으로 인해 받게될 오점에 대한 두려움을 상담장면에서 잘 다루어 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대중 계몽 차원에서 상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해 준다.

참고문헌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 19-32.
- Akutsu, P. D., Snowden, L. R., & Organista, K. C. (1996). Referrals pattern in ethnic-specific and mainstream programs for ethnic minorities and whi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6-64.
- Atkinson D. R., Wampold, B. E., Lowe, S. M., & Ahn, H. (1998). *Counseling Psychologist*, 26, 101-123.
- Beeman, W. O. (1985). Dimensions fo dysphoria: The view from linguistic anthropology. In K. A. & B. Good (Eds.), *Culture and Depression*.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gart, L. M. (1998). The relationship of stereotypes

- about helpers to help-seeking judgements, preferences, and behaviors. *PSPB*, 24, 1264-1275.
- Brinson, J. A. & Kottler, J. A.(1995). Minorities' underutilization of counseling centers' mental health services: A case for outreach and consulta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17, 371-385.
- Cepada-benito, A. & Short P.(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58-64.
- Fischer, E. H., & Turner, J. L.(1970).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 79-90.
- Foxhall, K. (2000, July/August). APA is key to anti-stigma campaign. *APA Monitor*, pp.48-49.
- Hennessy, S. G., Hennessy, K., & Yates, J. K. (1999).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mental health service use*. Paper presented at 107th APA convention in Boston.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38-143.
- Kuhl, J., Jarkon-Horlick, L. & Morrissey, R. F. (1997). Measuring barriers to help-seeking behavior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 637-649.
- Leong, F. (1986).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Asian-American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2, 449-457.
- Narikiyo, T. A., & Kameoka, V. A. (1992). Attributions of mental illness and judgements about help-seeking among Japanese-American and white American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363-369.
- Schoner-Reichl, K. A. & Muller, J. R.(1996). Correlates of help-seek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705-731.
- Singelis, T. M., Triandis, H.C., Bhawuk, D.P.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olberg, V. S., Choi, K, Ritsma, S., & Jolly, A. (1994),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5, 296- 301.
- Sorian, J. L., Emerson, E., Weber-Shifrin, E. M., & Donenberg, G. R.(1999). Gender differences and motivation for adolescent treatment. Paper presented at 107th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 Sue, D. W., & Sue, S. (1972). Counseling Chinese-American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50, 637-644.
- Tanaka-Matsumi, J., & Marsella, A. J. (1976). Cross-cultural variations in the phenomenological experience of depression: Word association stud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7, 379-397.
- Tata, S. P., & Leong, F. T. L.(1994). Individualism-Collectivism, socia-network orientation, and acculturation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80-287.
- Wampold, B. E. (2000). Outcomes in individu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mpirical evidence addressing two fundamental questions. In Steven D. Brown & Robert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711-739). New York: John & Wiley & Sons, Inc.

- Ying, Y., & Miller, L. S. (1992). Help-seeking and attitude of Chinese Americans regarding psychologica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549-556.
- Yoo, S. K. (1997). *Individualism-collectivism, attribution styles of mental illness, depression symptomatology,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Zhang, A. Y., Snowden, L. R., & Sue, S. (1998). Differences between Asian and white Americans' help seeking and utilization pattern in the Los Angeles area.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6, 317-326.
- Zhang, N., & Dixon, D. N. (1999). Acculturation and attitudes of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Paper presented at the APA convention in Boston.

An Exploratory Study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mong Koreans

Sung-Kyung Yoo Dong-Hyuck Lee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Koreans'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s according to gender, age, and the level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participants were 198 community sample, 150 college students, and 193 adolescents. They filled out the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Scale(Fisher & Turner, 1975) and The Scal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Singelis & Triandis, 1995). Results indicated that women and adolescent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than their counterparts, The positive relationship found between the level of collectivism and the score of trust toward professionals. However, there was negative relationship found between the level of vertical individualism and the score of stigma tolerance related to mental illness.